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동방 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찾아 나섰음을 묵상합시다!”(마태 2,1-12 참조)

+ 찬미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새해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성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정순택 베드로 주교

손희승 베네딕토 주교

구요비 읍 주교

하느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다

(마태 1,23)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찬
고통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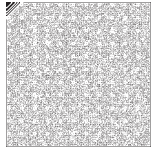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총과 평화를 청하게 됩니다. 곤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탄이 희망과 위로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북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얻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려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많은 서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형제적 사랑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상황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위로부터 오는 빛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분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 업적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빨리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이사 63,19) 자신들을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의 간절한 청원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기대하던 것처럼 권세가 당당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필립 2,7) 이런 점은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황제가 명한 호적등록을 위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눕힙니다(루카 2,1-7).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낮은 곳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낮은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별빛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듯이(마태 2,1-12),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의 일터를 떠나 마구간을 찾아갔듯이(루카 2,8-18), 우리도 일어나 그분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소유, 내 신념, 내 지식, 내 경험, 내 편을 고집하면, 구세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하느님께로 향해 걸어가야만 참 빛(요한 1,9)이신 구세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큰 기쁨과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선포하였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어서 자

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욕심’(창세 3,5)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 세상의 중심인 절대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정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경고하듯이 그릇된 욕망의 종착점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 1,15) 하느님은 잘못된 욕망에 빠져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이지만, 사랑과 자비를 가득히 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르면 자신이 받은 힘과 희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찬 고통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에 의탁하고,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향한 길을 깨끗하게 걷도록 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수경

주님성탄 대축일 밤미사

입당송 |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 시편 96(95),1-2ㄱ,2ㄴ-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성탄 대축일 낮미사

입당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 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시편 98(97),1,2-3ㄱ,3ㄴ-4,5-6(◎ 3ㄴ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 요한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청담동성당, 서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비운 마음에 구원을 엮고 당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누추한 제게 와 주신 아기 예수님을 뜨겁게 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당신을 제 삶으로 품고 말씀과 생명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복된 길이 열리는 이 시간을 아이도 기다린 듯, 두 손을 모은 채 아기 예수님을 한참동안 바라봅니다.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